

운영 조직 없고·콘텐츠 부족 문화전당 '반쪽 개관' 현실로

개관 D-100

민주평화교류원은 아직도 공사 중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 개관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전당 운영 조직이 꾸러지지 않은 데다 개관 콘텐츠(공연·전시 프로그램 등) 구축사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문화전당 5개월 가운데 하나인 민주평화교류원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중이다. <관련 기사 3·6면>
26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문화전당 개관(9월4일)이 27일로 꼭100일을 남겨두게 된다. 지난 2005년 광주시 동구 관산동 옛 전남도청 부지 일원에서 첫삽을 뜨지 10년만이 다.

문제는 문화전당 운영을 맡을 정부의 전담조직(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전담기구 구성의 토대가 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특별법)이 지난 3월 공포된 지 2개월이 지났

지만, 조직 구성은 첫 걸음도 떼지 못했다. 추진단은 지난 3월께 행정자치부에 100여명의 인원을 배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부처는 공무원 신규 증원에 부담을 느껴 미온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의 국회처리가 지연돼 개관 준비의 골든 타임을 놓친 상황에서 도미노식으로 개관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문화전당 개관콘텐츠 구축을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문화개발원(특수목적법인)은 사실상 업무 공백상태다. 정부의 전담 조직이 꾸러지면 그 일부 업무를 위탁받게 될 '아시아문화원'으로 새출발 하기 위해 지난 3월 법인해산을 의결한 상태다. 법인 해산 후 고용 승계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 없는 탓에 직원 300여명은 신분불안으로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 옆치대 뒀던 격으로 최종만 아시아 문화개발원장마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재임시 중흥건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 구축차질은 더 심각하다. 현재까지 문화전당을 구성하는 5개원(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정보원·문화창조원) 가운데 개관에 맞춰 콘텐츠 구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공간은 아시아예술극장이 유일하다.

대표적으로 문화창조원 복합 1관은 오는 11월까지 전시공간 구축과 작품 설치 작업을 해야할 것으로 관측됐다. 민주평화교류원의 경우 소속 건물(옛 전남도청, 본관 상무관, 경찰청 민원실 등 6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제때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추진단은 각 건물마다 공정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개관에 맞춰 일부 공간만을 개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당운영을 도맡을 정부전담기구 구성이 당장 완료되더라도 문화전당 운영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관 콘텐츠 미비는 차치하더라도 국립중앙박물관 보다 규모가 큰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시운전 기간도 없이 쫓기듯 문을 열게되기 때문이다. 복합문화공간의 경우 개관전 각종 행사를 바탕으로 관람객을 끌어들이며 시·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문화전당 개관행사에 참여한 일부 시민들은 벌써부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태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현 상태라면 지난해 시민들에게 공개한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의 80% 밖에 구축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도 "문화전당 개관은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고, 개관 이후에도 문화전당 개관콘텐츠를 보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독자와 함께 63년... 광주일보 내일 지령 2만호 발행



26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무등빌딩 광주일보 사옥에 지령(紙令) 2만호를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려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1952년 2월 11일 호남인의 대변자로 첫 발행한 광주일보(옛 전남일보)는 63년 3개월 17일만인 오는 28일, 호남 최초이자 전국 일간지 중 12번째로 2만번째 신문을 독자에게 제공하게 됐다. 광주일보 임직원들은 '독자와 함께 역사와 함께, 광주일보 2만호 발행'이란 문구를 넣은 대형 현수막을 통해 창간 이후 견지해온 정론직필이란 언론 본연의 책임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월 ☀️ 폭염

광주·전남 오늘 최고 33도...어제 보성 35.1도 기록

전남지역에 올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불볕 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5월에 폭염주의보(낮 최고기온 33도 이상인 날씨가 이틀째 기록할 것으로 예상될 때)가 발효된 것은 지난 2008년 폭염주의보·특보 개시 이후 처음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7일 광주·전남지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조금 끼겠고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올라 가겠다"며 "곡성·구례·순천·광양·담양·나주 등 폭염주의보 발효지역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26일 밝혔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19도, 낮

최고기온은 27도~33도 분포를 보일 것이다.

광주·전남지역에 때아닌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따뜻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고온 현상 때문이다.

이번 더위는 29일까지 계속된 뒤 토요일인 30일 비가 내리면서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6일 광주·전남지역의 낮 기온은 보성 35.1도(복내면)를 최고로 ▲구례 34도 ▲담양 33.2도 ▲광주 33.1도 ▲나주 33.1까지 수순주파 올라가는 등 더워졌다. 이들 지역(광주 제외)은 이날 정오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박기용기자 pbxer@kwangju.co.kr

금호아시아나 3년만에 금호고속 되찾았다

우선매수권 행사...금호터미널, 4150억원에 단독 인수

박삼구 회장 그룹 재진 첫단추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이 3년 만에 금호고속을 재인수한다.

금호아시아나는 26일 IBK 투자증권-케이스트 PEF(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금호고속 지분 100%에 대한 우선매수 청구권을 활용해 금호고속을 재인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금호아시아나와 IBK 투자증권-케이스트 PEF는 금호고속 지분을 금호터미널에 4150억원에 매각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금호터미널은 자체자금 등을 활용해 이날 계약금 500억원을 현금 지급하고, 기업결합승인 이후 나머지 잔금을 지불

하는 데 합의했다.

금호고속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리조트 지분 48.8% 역시 이번 계약에 포함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함께 인수하게 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상호간 원만한 협력이 이뤄져 금호고속 매각을 마무리 짓게 됐으며, 모태기업인 금호고속 재인수를 시작으로 그룹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금호고속은 지난 2012년 대우건설 지분, 서울고속터미널 지분과 함께 패키지 딜로 IBK-케이스트 PEF에 인수된 바 있으며, 이번 계약으로 약 3년 만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재인수하게 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5·18 35주년 결산 ▶6면

예술 꿈나무 맘껏 날아올랐다 ▶18면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2015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6월 8일(월)~19일(금)
문의: 062) 605-1115 광신대학교대학원

조합원 소득증대와 경쟁력 향상에 앞장서는
대촌농업협동조합
광주광역시 남구 표충로 581 Tel.062-602-0100

20000

조합원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깨끗하고 깔끔한 자연의 맛 즐기세요.
"대촌 사람들"

빛고을 광주 + 우수농특산물
대촌 농협

조합장 전 봉 식

이사 이은권	이사 김선정	감사 윤형식	전무 홍성운
이사 최석두	이사 강광명	감사 김한동	지점장 박정동
이사 정경숙	이사 이창열		지점장 김은영
이사 김선배	이사 조점남		